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막판 총력

우범기 시장, 예산안
법정 처리시킨 앞두고
국회 예결위원과 면담
예산 증액 반영 건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6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지역 연구 예결위 의원들을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이 예결소위의 최종조정 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가운데 전주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각인시켜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우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 시장은 이날 예결위 의원인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정)과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만나 시 중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또, 전북지역 예결소위 의원인 윤준병 의원실을 방문해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우 시장은 지방재정과 자치분권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상임위원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만나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전주의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등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위한 전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



내년도 국가예산안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은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왼쪽)이 예결위위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주시 중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인 만큼 기획재정부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날 주요 사업 관련 기재부 예산실 과장들을 만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 시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역사문화관광 외연을 구도심 전반으로 확장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사회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립모두예술플렉스 건립' △미래형 한국 정신문화 정립을 선도할 '간재선 비문화수원원 조성' △지역 스포츠 산업 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주스

포츠카치센터 건립' △주력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특화과학문화공간이 될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정원산업 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원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5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개최' 등 13개 사업이다.

시는 향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고, 예결소위와 기재부 예산실 등의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며 시 중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주요 사업 소관 국장들과 함께 서울에 상주하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연구 의원, 국가 예산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및 주요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 다수를 두루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 새로운 전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변화를 이끌어 갈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힘 없이 달려온 만큼 국회 최종의결 전까지 지역정치권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덕유산 향적봉에 생기 올해 첫 상고대. <사진=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겨울의 시작’… 덕유산 향적봉에 첫 상고대

지난 21일 아침 영하 0.7도까지 떨어지며 생성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은 향적봉에 올해 첫 상고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1일 아침기온이 영하 0.6도까지 떨어지고, 99%의 습도가 형성되면서 덕유산 향적봉(1614m), 대피소 등 주능선에 올해 첫 상고대가 생성됐다.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설천봉 정상(1,520m)의 기온은 지난 18

일 아침 5시경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8일 4시경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진 반면 16일 10시경에는 15.8도의 기온을 보이는 등 일자별 기온이 크게 변하는 시기이므로 산행시에는 방한용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전문성 기자

한글서예, 예술성 인정받다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쾌거'… 지속 계승·발전 기회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으로 관등에 지정고시됐다.

26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에 따르면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2023년 9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의 신규 지정 조사대상으로 포함, 마침내 한글서예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글서예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특히 한글 특유의 곡선과 형태가 지닌 미적 가치를 다양한 서체와 표현기법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이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재인식시키고, 한글서예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위원장은 "국가무형유산 지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지정 관련 브리핑.

정의 결실은 한글서예를 사랑해 준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고등작업으로 한글서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문성 기자

47주차 하수 샘플서 올 하반기 도내 첫 인플루엔자 발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해야"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47주차(11월 17일~23일) 하수(下水) 샘플에서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확인된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조기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 군산, 임실의 3개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매주 하수를 채취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34종 병원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47주차에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연구원이 수행 중인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사업에서 확인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으로 밝혀졌다.

도내에서 10월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는 지역사회 환자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키고, 특히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만호 기자

정음의 맛 **쌍화차**

찬바람 불면
정음 쌍화차로 건강 챙기세요!